

본당 행복한 가정 풍성한 은총이 가득한 새해가 되었으면



남을 위해서 받은 만큼 베풀고 행복하게 살았는가? 몇 시간 남지 않은 이 순간에 통찰하길 바랍니다. 내년에는 새롭고 좋은 일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모습으로 건강해야 하고, 우리 본당이 행복하면 저도 행복합니다. 가정이 행복해서 개인이 행복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우리 모두가 행복한 다가올 새해를 맞이합시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어 특전 송년 미사를 마친 교우들은 쌀쌀한 밤 기온 속에서 삼삼오오 둘러서서 여성 구역장분과에서 준비한 어묵과 따끈한 국물을 마시며 교우 상호 간에 새해는 건강하고 하느님의 은총을 많이 받으시라는 덕담을 주고받았다. 특히 본당에서 연세가 가장 많은 한상규(필립보)형제님의 모친이 금년 나이 100세로 며느리와 나란히 어묵을 드시는 모습과 바로 옆 이종훈(나자로)형제님의 6세 손녀가 깊어가는 제야의 밤을 지키기 위해 어묵꼬치를 들고 어리광을 부리는 모습도 보였다. 이러한 광경은 본당의 남녀노소가 새해에는 다 같이 소통과 일치를 이룰 것 같은 분위기를었다.



행복한 노후 신앙생활 행복한 건강, 행복하여 내년에 다시 뵙기를



서울대교구 시흥4동 성당 노년분과 소속 행복 시니어 아카데미는 12월26일(수) 학생 42명과 봉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관 그리스도왕 홀에서 2018년도 후반기 종강식을 가졌다.

종강식은 주임신부님의 격려사와 학생들의 출석개근상 수상, 간단한 맨손체조와 상품이 걸린 퀴즈시간으로 순서가 진행되었다.

주임신부님은 ‘공부하면서 행복하시고 추운 동절기에 더욱 잘 보내시어 내년 개강식엔 행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고 격려하셨고, 권오덕(클레멘스), 안계순(마리아), 이순희(비야) 학생에게 개근상을 수여 하였다. 봉사자의 시범으로 학생의 맨손체조를 진행한 후 상품을 걸고 정답을 맞히는 퀴즈시간을 가졌다.

